

(1) 古紙 再活用 권장이 山林愛護

吳 判 龍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와 열대우림의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 일본에서는 지난봄부터 再生紙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중앙관서는 카피用紙마저도 재생지를 쓰도록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대기업들도 재생지 사용으로 기울어 가고 있어 궁극적으로 山林애호와 연관되는 “푸른 숲운동”으로 승화되어가고 있다. 항상 본회에다 “山林애호자료”를 보내주고 있는 大阪의 梁健默씨는 「 종이製品은 山林을 깎은 산물이며 山林을 깎는 것은 우리生命인 貯水池나 독에 구멍을 뚫는 격이다」고 종이의 再活用을 외치고 있다. 古紙의 再活用은 팔프수입의 外貨절약뿐만 아니라 山林愛護 운동으로 연계되는 만치민간제지협회나 정부에서 정

책적인 유도로 古紙회수 및 재생지사용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늦게나마 용지재생의 붐이 일고 있는 것은 다행하다. 지난 8월 16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서울上鳳洞 중앙지설(株)사장 孔鶴允씨는 77년부터 13년동안 古紙를 수집, 용도별로 분류, 각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이제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회사로 발전했고 올해 매출목표를 20억원으로 잡은 성공담도 있다. 용지절약, 재생지사용은 외화절약, 산림애호와 직결되기에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이라 믿는다.

각 국공립공원 관리사무소서도 古紙회수·재활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2) 마을老人들과 폐품再生운동 示範

20년전으로 기억되는 어느해 미국서 열린 엑스포 회장에 출품된 미국의 出品作은 新銳機器아닌 피라 밀형으로 쌓아올린 廢品(쓰레기)의 산더미였다고 기억된다. 그 廢品(앞에는 『再生』이란 제목이 달려 世界人的 눈을 끌게 했었다. 오늘 우리社會가 바로 이 폐기文化라할까 버리는 것을 美德인양 착각하는 환경속에서 自覺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환경오염문제뿐만 아니라 資源節約의 次元에서 마을의 지도층부터 각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요즘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分類收去를 시행하고있는데 燻灰재는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지만 飲食찌꺼기類와 可燃性物質과 태울수 없는 物質의 分類는 잘되지 않고있는데 더욱이 골목마다 이들 폐기물의 봉지가 즐비하여 外觀이 말이 아니다. 美觀上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어두면 違反이라고 美化員들이 끌어내치우지 않겠다하니 分類收去도 좋지만 골목美觀도 考慮해 기존 쓰레기통을 活用토록함이 어떨지 묻고싶다.

더욱 문제인것은 헌옷가지같은 것은 充分히 活用

할수 있는 資源인데도 깨끗이 묶어 分類하지 않고 보기 흉하게 버리는 主婦도 있어 더욱 住居美觀을 어지럽게 하고있다. 위의 古紙收去의 경우와 같이 古紙도 用途別로 分類해서 各製紙會社에 納品하면 훌륭한 企業이 된다는 實例와 같이 廢衣類나 유리製品類·古鐵類·古紙類를 정성들여 分類해서 蒐集, 資源化하려면 人力不足인 現下 마을老人會員들의 自覺的인 參與를 期待할수 밖에 없을것 같다. 一定한 일 자리가 없는 老人들이 老人亭에서 무료한 時間을 보내면 健康에도 害롭고 虛無感도 생겨 보탬을 잃게 된다. 아무리 健康하다해도 老人들의 防犯活動은 限界가 있다. 再生할수 있는 아까운 資源을 分類蒐集하여 再生會社나 企業體에 納品하는 美化自願運動을 各市·郡·區에서 권장하여 定着되면 後進들에 師表가 될뿐아니라 心身健康과 老人會運營費 마련도 될수있어 國家的으로 波及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본다.

〈筆者：本會 事務局長〉